

성종, 군주의 자격을 묻다

방 상 근
(고려대 법학연구원)

I. 아무 일도 없었던 ‘태평성대’ ?

- 태조/태종 대의 정변과 권력투쟁, 세종 대의 제도화 과정과 문명의 성취(진보)
- 세조 대의 계유정난, 단종 폐위와 사육신/생육신, 북정/서정/내란, 훈구 대신의 전횡
- 반면 성종 대의 경우, 사소해 보이는 ‘에피소드’가 많음 [군자-소인에 관한 논쟁]
Ex. 누가 소인이고 누구의 심술(마음가짐)이 바르지 못하다는 등
- 처음에는 그 논쟁의 지루함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, 태평성대의 한가한 논쟁?

2. 사학계가 바라보는 성종시대

- 고려말의 이념투쟁(중흥 vs. 혁명)과 권력투쟁에 패배한 온건파 사대부들이 조선의 창업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, 훗날 사림파(절의파)로 불리우며 정치무대에 재등장
- 연산군과 중종 대의 사화를 통해 부각된 <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>의 기원을 성종시대 신세력의 등장에 따른 구세력과과의 갈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
- 관직의 고유임무가 재직 당시 관원의 행동과 논리를 규정
- 삼사(사헌부/사간원/홍문관)의 구성원은 유동적, 유망한 관원은 삼사를 거쳐 승진
- ‘사림파’로 불리우는 인물들의 출신 배경이 ‘훈구파’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

3. 철학계가 바라보는 성종시대

- 성리학이 아직 유교적 관료지식인에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시기
- 관학자 유학자들은 학문보다 시무(時務)에 많은 시간을 할애
- 사림파의 ‘도통(道統)’이라는 잣대와 ‘절의 정신’의 계승의 관점에서 파악
- 형이상학적 리기론(理氣論) 이해의 미성숙, “학문이 없었다”
- 정도전과 권근에서 출발하여 중종대 사림파(조광조)로 넘어가는 ‘과도기’
- 정치학계의 연구도 이러한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음.
 - ☞ 최근에는 군주 혹은 정치가의 리더십에 주목하는 연구(정도전, 태종, 세종 등)

4. 이 책의 관점은?

- 주자학에서 말하는 치인(治人)의 양륜(兩輪) : 정(政)과 교(敎)
 - ☞ 법도와 금령으로 외물을 제어함, 도덕과 제례로 마음(내면)을 가지런히 함
- 제도와 법령을 통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, 정치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‘내면의 변화’[複初]를 통해 성인(聖人)이 되는 것을 지향
- 이를 위해 위정자(정치 리더)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
 - ☞ 백성은 그 모범(감화)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화되는 것을 지향 [감동의 정치]
- 군자-소인에 관한 논쟁은 그러한 정치 리더의 자격을 둘러싼 ‘내부통제 기제’

5. 책의 제목은 어떻게 결정?

- 책의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, 최종 교정 때까지 여러 제목이 경합
- 교화의 나무를 심다, 개혁과 통합의 정치가, 무장한 예언자, 리더십의 거울 등
- ‘군주의 자격을 묻다’는 제목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
- (학술서가 아닌) 대중서라는 점, 새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시사적인 제목으로 ?
‘정치 경험 없이’ 최고권력자(군주/대통령)에 자리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부각
☞ 성종 치세 전반기[1부]에는 적폐 개혁, 후반기[2부]에는 포용과 통합에 방점

6. 군주(정치 리더)의 자격?

- 군주(정치 리더)가 되기 위한 자격? 최소한의 자격 요건?
- ‘좋은 군주(정치 리더)’가 되기 위한 자격?
- 군주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로 분류 [필자의 주관적 기준]
- 암군(폭군), 용군(중군), 명군(明君), 성군(聖君)
- 각 분류에 따른 군주의 ‘특징’ 혹은 ‘자격’은?

7. 암군(폭군)의 특징

- 배우기를 싫어함 혹은 배우려는 의지(뜻)가 없음
- 15장(실패한 후계자 교육)에서는 성종의 세자(연산군) 교육을 다룸
- 세자의 학습 부진에는 여러 이유가 있음
ex) 폐비 사건의 영향, 마음 고생, 서연 방식의 문제, 종기(질병), ‘외탁’의 부작용 등
- But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절대적 원인은 아님
- 충분한 시간/배려/프로그램 등에도 불구하고 ‘배우려는 마음’이 없었다는 점
그 결과 ‘정치 문법’(공론정치 등)에 대한 이해 부족, ‘비판’을 ‘도전’으로 간주

8. 용군(중군)의 자격

- 배우고자 하는 뜻과 노력(혹은 자세)이 필요
- 군주(정치 리더)가 된 이후에도(!) 그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(!!)
- 현실 정치에서, ‘열린 마음’(초심!)으로 끊임 없이 배우려는 군주/리더는 흔치 않음
- 대체로,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업적(성공스토리 등)에 스스로 도취, 완고한 태도
- 1장(치열하게 공부하다)은 역대 최다 ‘경연’ 참가자로 성종의 모습 다룸
- ‘준비 없이’ 왕이 됨/대비들의 기대가 원인, but 그것 만으로 설명 불가
- 친정(성종 7년) 이후에도 경연을 통해 정치 문법과 지식(이론과 실무)을 확충해 감

9. 명군(明君)의 자격

- ‘개혁’에 대한 의지와 실천 [중군(용군)은 기득권에 안주 경향 ex. 중종/명종/선조 등]
- 정치 현실은 언제나 철옹성,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위험/비용/갈등이 수반
- 2장(적폐 청산의 시금석), 6장(유신을 단행하다), 8장(권신을 제어하다)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실천을 단행하는 과정을 다룸
- 성종에게도 ‘철옹성’을 무너뜨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
- 권력기반인 <한명회(훈구대신)-정희왕후(왕실)의 파트너십>을 해칠 수 있음
‘교화’를 명분으로 하는 정치개혁은 ‘효치(孝治)’와 상충

- 성종 9년(무술년)의 옥사에서 시작된 정치 개혁은 인사시스템의 개혁으로
- 성종 16년 ‘승출(陞黜)의 법’ : 이조/병조/대간 등이 관직에 있는 자들의 현부(賢否)를 가려서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내치고 현사(賢士)를 등용
- 승출을 의논하는 ‘법정’에 참여한 사람들, 그 논의를 통해 퇴출된 사람들, 그들을 지켜보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과 사림들은 ‘내면의 변화’를 경험
- 훈구정치/부패정치를 지양하고 정치(가)의 윤리성/도덕성을 성찰하는 계기
- 성종 치세의 분수령, 조선 전기의 분기점

10. 성군(聖君)의 자격

- ‘정치 개혁’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‘명군’인가? ‘성군’인가? [그 경계는 애매]
 -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수반, 사람을 바꾸는 개혁은 첨예한 대립을 야기
 - 12장(대신과 대간을 중재하다), 13장(언론을 활성화 하다)
 - Ex.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논쟁, 내면의 선악을 문제 삼는 정치.
-
- 사람을 바꾸려는 개혁, ‘교화의 정치’는 출발부터 격렬한 갈등을 야기
 - 교화를 추구하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리더십이 요청

- 성종은 ‘개혁과 통합의 딜레마’를 어떻게 해소? [13장(언론을 활성화하다)]

“대신을 존중하고 대간을 예우하고 인사권과 형벌권을 신중하게 사용”

- ☞ 인(仁)으로 소인을 포용, 대간의 비판에는 자신의 허물 탓으로 (스스로 낮춤)
[大智若愚] 통합을 위한 기술? 비리를 감싸며 수세에 몰리는 모습으로 비취질 수도
- ☞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움, 정치는 ‘이론’이 아닌 실천의 영역

- 반면에 연산군은 ‘군주의 무기’를 남용하여, 임금과 대신을 비판하는 대간을 처벌(무오사화), 임금의 전제와 황음을 비판하는 대신과 대간을 처벌(갑자사화)
- 중종의 경우, 개혁의 의지와 노력은 있었지만, 현실적 실천에는 한계를 보임
- 왕권에 대한 ‘도덕적 교정’을 용납하지 못하고 조광조 등을 처벌 (기묘사화)

II. 향후의 과제

- 연산군과 중종 시대의 사화에 대한 검토 필요
-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?
 - ☞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, 대간 제도의 문제, 교화의 정치 등
- 《실록》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, 예단은 금물
 - ☞ 《성종실록》을 읽기 전에는 ‘成’에 주목하여 그 시대를 ‘제도의 완성’으로 이해
 - ☞ 사화의 원인을 교화에서 찾는 현재의 입장은 아직 ‘가설’ [사학계의 ‘통설’]